

LG그룹, Display-2차전지 세계1위 도전

LG그룹이 차세대 유망 업종인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등 이른바 정보소재사업의 세계1위를 목표로 내걸었다.

구본무 LG 회장은 5월8일 충북 청주 소재 LG화학 정보전자소재 공장을 방문해 “정보전자소재 사업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”며 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.

이어 “정보전자소재 사업은 미래 핵심소재 사업으로서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”고 전제한 뒤 “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먼저 내놓아 시장을 선도하는 1등 기업이 돼야 할 것”이라고 당부했다.

LG는 2002년 말까지 TFT-LCD용 편광판과 PDP용 편광판 등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, 리튬이온전지와 리튬 폴리머전지 등 2차전지 분야에 1200억원을 투입하고 매출액을 2002년 3800억원 수준에서 2005년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.

LG그룹은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인 TFT-LCD용 편광판 분야는 2002년 말까지 3기 생산라인 완공하고, 2004년 말까지 국내 또는 중국, 타이완 등지에 4기 생산라인을 건설해 총 1000만㎡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5/ 09>